

www.bsm.or.kr

2018년 봄호 • 통권12호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오늘 이후의 길을 묻다

이 채 우

지금은 인생의 어디쯤일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나의 생애는
이제 눈물의 구름되어
하늘나라에 배달되었다.

신의 한 수처럼
눈물 소포를 받은 당신은
사랑의 눈물로 정화해
이승의 정한 수돗물로 보내왔다.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의 계시로
우리는 견우직녀로 다시 만날까?
가령 열린 몸으로 만져 보는
생시의 우리사랑
언제나 하나의 소명처럼
온 누리의 빛이 될까?

불멸의 몸짓으로
언제나 내 정신의 환유에서 빛날
우리들의 온전한 처음의 사랑처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발행일 2018년 5월 28일

발행인 김준현

편집인 윤명숙

발행처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 051 933 7133 F 051 932 8636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 T 051 636 1215 www.ggad.co.kr



CONTENTS

02	권두 이야기 오늘 이후의 길을 묻다
	팀원들의 이야기
04	① 자궁경부암 / 산부인과 백경돈 과장
07	② 호스피스 병동 적응기 / 완화의료센터 지주영 간호사
	환자와 가족의 사랑 이야기
08	① 뒤돌아보는 기도 / 故강지석
10	②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 / 故정증숙의 남편 이기운(사도요한)
12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1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NEWS
15	이용 안내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 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자궁경부암 CERVICAL CANCER

백경돈
산부인과



자궁은 체부와 경부로 구분되는데 질에 노출된 경부에 발생하는 암을 자궁경부암으로 부른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유방암, 대장암 다음으로 세 번째로 흔한 암이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까지 자궁경부암이 여성암 중 첫 번째로 높은 빈도였지만 현재는 보건복지부 암 통계(2015)에 의하면 여섯 번째로 흔하다.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의 발생자 수는 10년 전까지는 매년 4,000명을 상회했고 1,400명 정도가 사망하였다. 최근 10년간은 매년 3,500~3,900명 정도 발생해 1,3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017)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왔기 때문이다.



원인

① 주원인

성적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주 원인이며 자궁경부암에서 거의 100% 발견되고 있다.

② 보조인자

흡연은 자궁경부상피의 면역력을 낮추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을 때 질환으로의 진행을 촉진시킨다. 조기의 성경험 즉, 첫 성관계의 나이가 어릴수록, 다산의 여성, 성 접촉 대상자가 많은 여성, 만삭 임신의 첫 나이가 17세 이하 일 때, 면역기능 저하자, 피임제 사용 등이 보조적인 원인이 되며 지역적으로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전 세계 여성암 TOP3

- 1 유방암
- 2 대장암
- 3 **자궁경부암**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암통계



자궁경부

질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발생자&사망자 수 집계

10년전
매년 발생자 4,000명 중
1,400명 사망

최근
매년 발생자 3,500명~
3,900명 중 1,300명 사망

증상



비정상적 질 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성관계시, 생리 사이, 폐경 후 출혈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궁내막암이 초기에 출혈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자궁경부암은 종양이 크거나 진행이 된 경우 외에는 초기증상이 없다.

이차 감염이 발생하면 악취가 동반되고, 진행이 많이 되면 골반통, 장과 방광에 대한 압박증상, 하지통, 부종, 질쪽으로 뇨, 변이 새어나오기도 한다.

진단



① **자궁경부 세포진검사(Pap smear)/액상 세포진 검사**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은 1년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궁경부암의 빈도를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한 검사법이며 단점을 개선한 액상 세포진 검사도 있다.

② **질 확대경 검사**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면 자궁경부의 병변을 확대하여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자궁경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검사법이다.

③ **조직생검**
질 확대경 검사 하에 자궁경부의 병변을 생검해 조직학적 확진을 한다.

④ **원추 절제술**
진단을 위해 많은 조직이 필요할 때 자궁경부를 원추형으로 절제해 진단하는 방법이다.

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Test)**
바이러스의 DNA를 이용한 검사법으로 감염 여부와 종류를 동시에 알 수 있는 보조적 선별검사이다.



치료



병기에 따라 치료계획을 세우게 된다.

1기에서 2기 초까지는 수술을 주로 한다. 수술은 광범위 자궁적출술과 골반림프 절제술이다. 수술 후 골반림프 전이가 확인되면 동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2기 말 이상은 수술대신 동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가 시행된다.



예후



조기에 발견 될수록 생존률이 높아진다.

치료 후 5년 생존률은 병기에 따라 다르며 1기는 80~98%인데 1기 초는 거의 100%이다. 2기는 65~80%, 3기는 35~40%, 4기는 35% 이하이다.



예방



- ①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2가, 4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70%의 원인이 되는 16형, 18형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작용을 한다. 최근 출시된 9가 백신은 아홉가지 형의 바이러스 (6, 11, 16, 18, 31, 45, 52, 58형)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한다. 접종을 주 대상은 여성이지만 2013년부터 호주,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남성에게도 추천되고 있다.
- ② 성교육을 통해 첫 성관계 연령을 늦추고, 성관계 대상자 수를 제한 할 필요가 있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은 매년 정기적인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를 시행한다.



호스피스 병동 적응기

지주영

완화의료센터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로 근무한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덜컥 지원하여 간호사로서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1년 전보다는 조금 알고 있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나름 준비를 하고 왔지만 실제로 접한 곳은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적인 분위기에 환자들과 정서적 교류를 하며 지낼 줄 알았던 병동은 역동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생명의 고비가 오고 갔기에 빠른 대처를 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능숙함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봐야하고, 여느 환자 및 보호자보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이 곳에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점점 커갔습니다. 환자의 상태변화 하나도 사소하게 넘길 수 없고, 저는 많이 부족한 간호사였습니다. 항상 곁에서 알려주고 지지해준 병동 선생님들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겨우 한사람 몫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저에게 간호를 받으며 불안함과 걱정이 많았을 환자분들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환자와 보호자들을 생각하면 더 발전하는 간호사가 되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병동에서 함께 지냈던 환자분들을 생각해보면, 처음엔 예민하고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병동에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환자분들의 생

일이나 특별한 순간에 함께 축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으시고, 즐거워하고 하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병동에서 24시간을 보내야 하는 보호자들도 환자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병간호로 지쳐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 위해 힘을 내고 있는 분들에게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새겨듣고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임종의 순간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만 하는 가족의 슬픔은 어떠한 위로로도 감싸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깨를 쓸어드리거나 손을 잡아드리는 정도로 위로를 전할 수 밖에 없는 제가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임종 후 병동에 찾아오셔서 인사를 전해주시는 보호자분들을 보면 그동안 병동에서 했던 것들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작게나마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혹은 두세달 가까이 함께 지내며 시간을 보냈던 많은 환자분들을 생각해보면, 병동에서 보내야 했던 마지막 시간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떠올려보며, 처음은 부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능숙한 간호사가 되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편안하고 가치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병동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뒤돌아보는 기도 신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글 | 故강지석

하느님!
저에게 죽음을 뛰어 넘는 신념을 주소서.
그리고 이겨내는 용기를 주소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2009년 29살의 저는
그저 억울하고, 이제 시작인 이 세상에 더 머물고 싶어
독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찾은 이 목숨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나와야 할 때
배운 것이라곤 어설픈 영업의 요령과 커피,
목발신세니깐
혼자서 할 수 있는 커피를 시작하였습니다.
치유의 한 잔, 그 한 잔을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 능력을 키워주소서!
쉽 없이 노력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운이 좋아서 가게를 계속하고
경험을 쌓아가고, 자격증 감독도 하고,
커피에 대한 강의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아버지랑 '해인두밀'이라는 카페도 합니다.
카페 운영은 아버지와 고양이와 잘 해 주고 있기에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를 더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강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가는 올바른 길이 되길.
겉만 좋아 보이는 이 업종에서



희망으로 버틸 수 있도록,
 행여나 이 업을 하게 된다면,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내 비록 장애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 다른 것을 많이 얻게 된 저를 보고
 희망을 잊지 말기를, 용기를 가지기를...
 사람들과 더 즐겁게 소통할 수 있기를!

하느님,
 다시금 제가 투병을 해야 한다면
 즐겁게 이겨낼 수 있기를...
 고통의 순간을
 나를 위해,
 삶의 희망을 잃어 힘들어하는 이들
 갇은 형태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먼저 떠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견디게 해 주소서!
 그리고 또 다시 수술을 한다면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소서!

하지만
 신이 내일이라도 나를 데리고 간다면
 그 분 앞에서 투병 이후 얻은 새로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잘 살았다고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기를!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BY 커피꾼 2016.1.19

(2017. 5. 25 본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새벽 3시경 임종, 입원일자 4일째)

환자는 2017년 5월 21일 오후에 입원. 아주 잘
 생긴 젊은이였고, 9차례의 수술을 하면서 9년을
 견뎌냈던 강인한 의지를 가졌고 그 무엇보다
 하느님을 깊이 사랑한 환자였다. 임종 후에 환자
 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글 중에 하나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

글 | 故 정증숙의 남편 이기운(사도요한)

평소에 하느님께서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성당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톨릭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제가 가톨릭 신자가 된 계기는 가톨릭 재단의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내의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 그 병동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수녀님과 장례업무 자원봉사자이신 루시아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으며,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무신론자였던 나는 30일간 연미사를 봉헌하고 매일 미사참례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성당에 찾아가 예비신자 교리공부 등록 후부터 평일 및 주일미사를 빠짐없이 참례하여 저는 남은 예비신자 교리 공부를 마치고 신부님께서 작년 10월 29일 미천한 저를 하느님께 인도하시어 세례예식으로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마음이 설레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내 주위에 조언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하기 전 하고 느끼는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는데 믿음을 갖고부터는 오늘 하루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묵상이나 자유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돌이켜보면 기도를 해도 대부분 제 자신을 위한 기도이었으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에 반해 저의 대부님(황재웅 프란치스코)과 많은 분들이 회사생활을 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말을 못하



고 불평불만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때론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저에게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감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보고 느끼는 점이 많아야 간혹,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쉬려고 하는 교우들의 생각이 바뀌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며, 과연 난 대부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남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속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금까지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찰의 시간을 갖고 참다운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미사참례를하면서 신부님의 강론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를 입은 것 같고 마음의 정리도 해봅니다. 이제 나는 가톨릭 신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겸손하고 언행에 신중하고 낮은 자세로 좋은 모습 보여주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신앙생활하고부터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부산에 내려가 옛 직장 동료 후배 들하고 만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신앙생활에 대한 소감을 말해주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폰 메시지를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감사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항상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앞으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여정이 라 생각하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며 어떤 말씀과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우며 신앙 지식을 쌓고, 항상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비출 수 있는 빛과, 내 몸을 녹여 남을 위해 희생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병자의 날 행사 | 2월 10일

올해로 26회를 맞는 세계병자의 날,
본원의 음악회와 더불어 호스피스병동의 환우들에게 손편지와 꽃, 작은
선물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동행인으로 함께 하고자 하였다.



부활축하행사(환자와 가족을 위한 특식 만찬, 부활계란과 다과 선물)

예수부활의 참의미와 축하를 담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활계란 선물과
특식 만찬을 제공하여 나눔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 일 시 : 2018년 3월 29일 오후 5시
- 장 소 :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참 석 : 환자와 가족, 팀원, 도우미 등 80여명

1, 2차 사별가족모임

사별 후의 슬픔은 물론 문득 차오르는 죄스러움의 시간에서 쉽게 지워
지지 않는 기억들로 아파하는 마음의 행로를 어디에서도 말하기 어려우나
사별가족끼리의 나눔을 통해 위로와 용기 격려의 시간으로 풀어내고 공감
하며 더욱 사랑하고 사는 것을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모임이다.
의지적으로 잘 지내다가도 그리움은 갈수록 더 짙어져 힘들 때는 그분의
뜻을 새기고 기억하며 오늘을 잘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족들에게 팀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유지하고자 한다.

- 일 시 : 2018년 2월 27일, 4월 24일 오후2시
- 장 소 :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프로그램실
- 참 석 : 40가족 47명 참석(22/23, 18/24)



2018년 제5차 부산경남지역 호스피스 완화도우미교육

완화의료보조활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완화도우미를 양성하는 교육이 전·후반기(연 2회)로 실시되고 있다.

- 일 시 : 2018년 4월 10, 11, 12일 3일간
- 장 소 : 본원 4층 베네딕도홀
- 참 석 : 62명 교육수로



2018년 통증캠페인 실시

통증은 암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이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참은 후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였다.

- 일 시 : 2018년 5월 9일
- 장 소 : 본원 통증 캠페인(1층 로비, 10층 로비)
- 대 상 : 본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NEWS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상반기 심화교육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심화교육(주제 : 봉사과 봉헌, 심폐소생술, 죽음에 대한 이해)을 매월 실시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주관 제18회 전국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참석

제18회 전국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을 기해 본원 완화의료센터의 봉사자 및 팀원 참석. 이 날은 천주교 광주 대교구의 원로사목을 담당하시는 강길웅 신부님의 “최선을 다하자.”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봉사를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모욕과 핍박, 땀방울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받는 자녀들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임을 알고 돌봄의 손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복된 자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3

본원 정인창 호스피스봉사자 우수자원봉사자상 수상

전국호스피스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우수자원봉사자상에 본원의 정인창(스테파노)님이 수상.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앞으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몫을 지속하기를 바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용안내

본원 입원 환자

담당의
완화의료팀
의뢰



완화의료팀
소속의사
진료



완화의료팀
병동면담
및 안내



입원

타 기관 환자

타 의료기관
의료 정보



완화의료팀
소속의사
진료



완화의료팀
병동면담
및 안내



입원

- ※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② 최근 검사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조직검사 결과지)
③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
④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시간 및 진료과 안내

-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예약 : 051) 933-7777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 입원형 호스피스 : 혈액종양내과 진료 051) 933-7253
- 가정형 호스피스 : 비뇨의학과 진료 051) 933-7861

진료상담 및 문의

- 입원형 : 051) 933-7133
- 가정형 : 051) 933-7969
- F A X : 051) 932-8636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
오후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

※ 단,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는 비뇨기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 T. 051) 933-7969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T. 051) 933-7133

완화의료센터 입원 진료예약 T. 051) 933-7777

| 찾아오시는 길 |



- 서면방면 20, 24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동래방면 131번
- 해운대방면 39번
- 마을버스 남구2, 2-1, 8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 051 933 7114 F 051 932 8600